



신 동 립 | 스포츠투데이 기자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주머니 사정을 견디다 못해 접대부(호스트)로 뛰어드는 남자들이 늘고 있다. 와중에 여자들 사이에서는 연하남 사귀기가 유행이다. 동시에 형태도 다양한 여자술 손님 접대업소마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 준비생 김모씨(26·부산 사하구)의 현직은 호스트다.

"취직이 안 되고 생활비도 없어 난감해하던 중 알고 지내는 형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고백. "월수 1,000만원 보장이라는 유혹을 정말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생계형 호스트의 효시로 1997년께 출현한 '아빠방'을 꼽는다. 당시 IMF 사태로 실직사태를 맞은 30~40대 남자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투신한 일자리다. 그때나 다음 없는 취업난 속에서 '총각방' 격인 호스트바에 몸을 담는 청년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여성들의 연하남 선호의식도 자리하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락커플레이 낮설지 않을 정도가 됐다.

>> 위험한 '제비'

대신 안전한 '호스트' 선호

아줌마들 역시 새파란 호스트를 상대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서울 강남의 K카바레 업주는 "아줌마들은 '위험한' 제비보다 '안전한' 호스트들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그 탓인지 카바레를 찾는 여성 수가 꽤 늘었다"고 전했다.

여성들이 호스트바를 자주 들락거리게 된 데는 이들 업소의 '차별화한' 서비스 전략이 주요했다. 여성대상 퇴폐 출장 마사지업소를 비롯, 남자 터켓다방인 '남뽕', 퇴폐 쇼를 주로 번이는 '발벌방', 대중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승부한다는 'DJ방'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의 유흥 놀이터 선택 폭이 넓어졌다.

게다가 여성들 간에는 '남자가 룩살롱 드나들 듯 여자가 호스트바 출입한다고 문제될 것이 뭐냐'는 반발감에서 기인한 합리화 의식이 팽배하다. 호스트바에서 술시중을 드는 남자들의 가치관도 '죽어도 그 짓만은 못한다' 대신 '한번쯤 해볼 만한 돈되는 직업'이라는 '프로의식'으

로 차츰 바뀌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에서처럼 잡지에 자신의 얼굴과 몸을 광고하는 '남창'이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기우만은 아닌 상황이다.

이미 '출장 마사지' 처럼 명함·전단을 뿌리는 호스트들이 서울 강남알대를 비롯, 지방 대도시에 널려 있다.

호스트들은 확실히 양지로 올라왔다. 셔터를 내린 채 신분이 확인된 여성만 출입시키는 식으로 숨어서 장사하던 것은 이미 옛말이다. 길거리에서 당당히 호객행위를 하는 호스트가 낮설지 않다.

호스트들은 4,5명이 팀을 이뤄 여성들이 많이 불리는 백화점과 상가, 그리고 헬스클럽 등지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다.

대전 유성구의 여성의류 판매업자 이모(30·여)씨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얼굴도 새로운 호스트들이 상가를 돌면서 '꼭 눌러와라. 와서 〇〇을 불러달라'며 명함을 건넨다"고 전했다.

>> 퇴폐 - 음란 일색, 재미불인 여성 늘어나

이들 호스트는 직업이 확실하고 고정 수입이 있는 여성을 선호한다. 줄부 남자가 호스티스와 탄 살림 차리듯 호스트를 애인으로 둔 재력 있는 여성도 적지 않다. 그래서 호스트의 월수입은 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모든 호스트가 풍요를 구가하는 것은 아니다. 업소에 진 빛이 만만찮은 경우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자 탓에 빛이 수천만원의 넘는 호스트도 있다. 순진하고 부유한 여성에게 접근, 호감을 산 뒤 돈을 뽑아내느라 혈안이 된 수밖에 없다.

남자 접대부 고용은 불법이다. 그러나 유성 일대에는 호스트바들이 성업 중이다.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당국의 단속을 피해 호스트를 두고 변칙영업을 하고 있다.

유성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풍기 문란 등의 법 조항을 적용해 매주 2차례씩 경찰과 함께 새벽에 기습 단속을 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업소로 들이닥치면 변태

영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허탕을 치기 일쑤"라고 털어놓았다.

'택바'라는 은어로 통하는 호스트바는 단란주점이나 룸살롱을 개조한 곳이다. 룸안에서 빛어지는 풍경은 퇴폐와 음란 일색이다. 여자들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여자 손님과 외박을 나가는 일이 당연하다.

수요 없는 공급이란 있을 수 없다. 호스트바에 재미를 느끼는 여성들도 크게 늘었다. 2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나이트클럽보다 호스트바로 눈길을 돌리는 여성이 상당수다.

호스트바를 드나드는 여성은 술값으로 1인당 20만원쯤 준다. 호스트를 테이블 위에 올라가게 한 후 나체쇼를 벌이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 호스트에게 공개적인 자위행위를 요구하기도 한다.

호스트 김모(26)씨는 "친구를 따라 이곳에 왔다가 잘 생기고 매너가 좋은 호스트에게 빠져 빛을 내면서 계속 늘려오는 여대생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 유명브랜드 양복이 유니폼

'나가요' 호스트에게는 그들만의 패션이 있다. 입은 옷만 보면 호스트인지 알 수 있을 정도다. 디자인이 똑같은 옷차림으로 2,3명씩 짝을 지어 밤거리를 활보하는 젊은 호스트들의 양복은 여느 정장과 다르다.

서울 압구정동과 지방 곳곳에 지점을 둔 O브랜드 양복이 이들의 '유니폼'이다. 뒤를 트지 않은 양복 저고리의 길이가 엉덩이를 덮을 정도로 길다. 바지의 통도 부척 넓은 편이다. 허리선을 깊게 깔고 전체적으로 볼매를 타고 흘러내리는 듯한 분위기가 슬림하면서도 호느적거리듯 풍성한 느낌도 준다. 색상은 검정과 갈색, 카키가 주류다.

호스트들이 너도나도 O상표 옷만 골라 입으면서 30만원 대이던 이 양복 값이 최근 60만원선으로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스트바 근처의 노점상 최모(34·여)씨는 "O상표 옷을 입은 젊은이라면 틀림없이 술집 총각"이라면서 "O상표 양복은 보통 남자들보다는 호스트들 사이에서 더 유명한 맞춤 양복이다"고 말했다.



여성들 간에는 '남자가 룸살롱 드나들 듯 여자가 호스트바 출입한다고 문제될 것이 뭐냐'는 반발감에서 기인한 합리화 의식이 팽배하다. 호스트바에서 술시중을 드는 남성들의 가치관도 '죽어도 그 짓만은 못한다' 대신 '한번쯤 해볼 만한 돈되는 직업'이라는 '프로의식'으로 차츰 바뀌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에서처럼 잡지에 자신의 얼굴과 몸을 광고하는 '남창'이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기우만은 아닌 상황이다.